강연초특 정세변화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진보학문 탄압이 전초전

우리사회는 지금 공안몰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유난히 무덤덤 지난 여름을 박홍총장의 발언에 빗대 박홍같은 단씨라고 답답해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상대 교수 9인이 공동성명 필해 4년여 동안 장의해온 '한국사회의 이해'가 공안당국의 표적이 됐다. 그리고 이미 4백명 이상이 수강신청을 해놓은 이 장의는 폐강됐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8월25일 사월혁명연구소에서 '정세변화와 학문 사상의 자유'라는 주제의 월례발표회가 개최됐다. 이 글은 김상곤(민교협 교육위원장, 한신대 경영학)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김교수는 이번 사건을 정치사회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김영삼 정권의 한계와 관련지어 분석했다. 또 이 사건이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편집자 註〉

지금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깨지면서 탈냉전의 구도속에 국제화, 세계화의 논리가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미·일·EC의 3극체제 속에서 지역주의와 지역블록화로 진전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지배력이 더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년들어 김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독점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재생하여 민주화, 자주화 이념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보다 분명히 언급되었듯 대미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흡수통일론과 북한에 대한 핵패권주의적 입장이 거듭 천명되고 있다. 카터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한때 국면전환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주석의 사망 이후 소모적인 조문논쟁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신공안정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김교수는 현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정치는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존하고 국제정치는 공안통치를 위한 장식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년반동안 국민들은 구시대의 반민주적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개혁된 민주사회를 이룩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계를 비롯한 점멸세력은 오히려 기득권적 수구세력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김교수는 비판한다.

최근 엘네스티의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날한은 국보법 폐지권고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북한의 인권상황을 내걸어 남북관계개선의 선제조건으로 언급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또 지주적인 주도권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현정부가 국내의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북핵문제를 물고 늘어지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미국은 현정권이 펼치는 공안통치의 약점을 활용하여 북미관계의 강온책을 김정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한다. 한편 경제와 통상면에서 실리를 한껏 취하고 있다. 이를 들면 미·일에 앞선 UR국회비준을 강요하고 미국상품의 강매를 요구하는 등 정치경제적 주권침해를 제국주의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는 현정권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런 예를 통하여 현정권은 한마디로 국제정치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국제적 미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한다. 또 이는 국내정치의 반민주성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노사정 간에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또 이를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기업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노동자 보호조치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도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기술과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국제경쟁력의 기본요소로 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혁명의 추세에 역행한다. 따라서 노동통제민능의 축적정책은 그 자체로도 경제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관련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정권은 자본중심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민주적 노동운동에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농촌 농어민제 인식에 있어서도 김정권의 신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육성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정책의 하위목표가 될 수 있을 뿐 기본목표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농업발전의 진정한 힘은 농민의 농업생산기술 축적 및 유통을 위한 협동조직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농민의 자주적 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자발적 농민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농협의 민주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5, 6공 세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접착을 통해서 비로소 출범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김정권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을 분리하여 일부시민운동세력을 정권의 외곽조직으로 혹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대체세력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김교수는 이번 사건이 김영삼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또 지배집단의 권력기반 확충과 권력중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보학문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교수를 부력화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대학은 다양한 연구와 견해에 바탕하여 사회의 문제점과 역사발전의 미래상을 탐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다. 따라서 대학의 본래역할은 이번 사건에서 공안당국이 주장하는 이적성의 개념과 효과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헌장, 모든 주장에 대한 탐구와 검증에 있다. 실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의 관점이 기존의 관점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평가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에 맡겨져야 한다고 김교수는 역설한다.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이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고전적 시민권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본래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다. 이런 점에서 김정권의 이번 기도는 대학교육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제 이데올로기의 암기수준에 묶어놓는 처사이다. 대학사회내에서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수준으로 억압받는다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는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추락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회의 비판정신이 이렇게 정체되고 퇴행할 때 그 사회의 균형있고 풍요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현정부는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 및 자주적 통일이라는 국내외적 당위성에 역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안통치와 공안정국의 퇴조를 기대한 매상반 속에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나 예상을 지지할 만한 어떠한 뚜렷한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교수는 현정권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현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교육관계법, 출판·언론 관계법, 집시법 등 각종 악법이 개폐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UR에 대한 국회비준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가 철회되고 농업과 농민의 희생쾌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속에서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걸맞는 이념과 정책이 계발되기 위해서도 이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은 사급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창의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정리 : 전채연 記者〉

◇…진주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는 현정권의 공안정국 조성의 희생양으로 이적성 시비에 휘말렸다. 사진은 민교협 등 9개단체로 구성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폭넓은 기본권 보장으로 국내외 정세 대응해야

기득권 수구세력화로 인한 신공안정국 형성

신 공안산맥 넘기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서 화제를 모았던 음악가 정명훈씨가 바스티유측의 일방적 해임에 맞서 그의 명예 회복과 진정한 음악활동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외모운 싸움에 성원을 보내는 것은 뜨거운 동포애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파업마저도 불사하는 오페라단 단원들의 지지가 발휘 주동이 무릇 예술의 영역은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은 권력과 자본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침해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배이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더많은 돈을 벌기위해 수없이 짓밟히고 이용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군사정권하에서 날뛰며 불려졌던 '아침이슬'이 그랬고, 국내에 소개조차 되지 못했던 동구권 영화들이 그랬다.

88년도 미국 직배 영화사인 UIP가 '위협한 정사'로 우리 방화 시장에 처음 포탄을 열었을 때 반대의 여론이 드높았던 가운데 영화인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를 벌였었던 것도 이미 권력의 힘앞에 그릇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제한받아왔던 한국 영화예술이 또다시 자본의 굴레속에서 자유로운 예술혼을 억압받을 수는 없다는 항변이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시장규모는 세계10위권에 들만큼 껑충 성장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우리 영화계가 직면한 현실은 외화 직배 이후 콜롬비아, 워너 브라더스 등의 미국직배사들이 속속 한국시장에 입성했고, 이외에도 미국의 캐롤코, 영국의 폴리그램, 프랑스의 고몽사 등 세계적인 영화사들이 한국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국영화는 이제 서서히 외국 대자본의 벽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 임권택 감독은 자국적인 오락영화에 길들여진 우리 관객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영화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끊임없이 소재와 기법을 달리 하면서도 그는 한국적인 정서를 잊지 않았고 그런 그가 이제 10년전에 이미 결심했다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영화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의 원작인 '태백산맥'은 군사정권시절이었던 출판당시부터 그 사상성 논쟁으로 인해 수없이 거론되었던 작품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10여 년동안 3백50만부가 팔렸고 이미 독자들로부터 냉정한 검증을 거쳐 대중문학으로 호흡해온 터이다. 그리고 원작과는 또다른, 영화로서의 '태백산맥'은 관객에게 다시 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의 예술인이 10년에 걸쳐 대중적으로 폭넓게 읽히고 있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한편의 영화는 관객의 평가도 채 받기 전에 극우 반공주의자들의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의 관객도 그 개봉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터에 일부 소수의 극렬한 행동에 상처받는 영화계의 현실이 우리시대의 한단면이기에 그저 씁쓸할 뿐이다.

〈박경화 記者〉

학술단신

한반도·미국관계 강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철환)는 오늘부터 16일까지 '한반도와 미국관계의 학술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성균관대 시청각세미나실에서 제4회 정례강좌를 개최한다. 인하대 성영태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등이 '남한과 미국의 정치·군사관계'등을 강의하게 된다. 888-3683

신세대가 본 정치문화

오는 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3층 대회의장에서는 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한완상) 주최로 '정치 신세대가 본 한국의 정치문화-그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가 열린다.323-4144

정동불교대학 강좌

정동불교대학은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정토포교원에서 매주 화, 목 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차례씩 불교강좌를 실시한다. 이 강좌는 왜곡되고 난해하며 비현실적인 불교를 극복하고 쉽고 바른 생활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개설되는 것이다. 737-0853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민예총이 개설한 문예아카데미(회장 염무웅) 가을강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 아카데미는 창작, 영화비평, 미학, 건축, 미술 전통예술 강좌등이 개설되며 문의전화는 745-6471. 9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5천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문예아카데미는 대중을 위한 높은 수준의 문예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여성상담전문교육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오는 8일(야간 7시30분), 9일(주간 10시 30분)부터 매주화, 목요일 두 차례씩 여성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강좌는 가정, 사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폭력을 상담하면서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한 상담원을 배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269-2962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외국어 강좌

영 어 회 화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8주간)
2. 강의시간:초급=
A반 07시 30분-08시 30분
(월-금 주5일 수업)=STEVEN
D반 18시 20분-19시 20분
(월-금 주5일 수업)=STEVEN
E반 07시 30분-08시 30분
(월-금 주5일 수업)=PATRICK
F반 17시 10분-18시 10분
(월-금 주5일 수업)=PATRICK
중급=
B반 08시 40분-09시 40분
(월-금 주 일 수업)=STEVEN
C반 17시 10분-18시 10분
(월-금 주5일 수업)=STEVEN
3. 모집인원 : 각반15명
4. 강 사: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발음을 가진 미국인
■STEVEN A. COLLYER
■PATRICK D. KHAMIS
5. 수 강 료 : 8주 130,000원

영 작 문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8주간)
2. 강의시간 : 17시 10분-18시 30분 (월, 화, 목 주3일 하루 80분씩 수업)
3. 모집인원 : 30명(정원제)
4. 강 사:이승희 선생
5. 강의내용 : 대기업 취업 대비, 유학준비, 대학원 진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6. 수 강 료 : 8주 80,000원

영 어 순 해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8주간)
2. 강의시간 : 17시 10분-18시 10분 (월-금 주5일 강의)
3. 모집인원 : 50명(정원제)
4. 강 사 : 박영재 선생
5. 강의내용 :
*어려운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감각을 훈련, 숙달.
*표현패턴과 문형 등을 집중훈련하여 독해력은 물론 영작과 청취력을 향상시킴.
*다양한 독해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각종 시험에 대비.
6. 수 강 료 : 8주 60,000원

아카데미 TOEFL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8주간)
2. 강의시간 :
A반=07시 30분-08시 30분(월, 화, 수, 목 주4일 수업)
B반=17시 10분-18시 10분(월, 화, 수, 목 주4일 수업)
3. 모집인원 : 각반 50명(정원제)
4. 강 사 : 이삼홍 선생
5. 강의내용 : TOEFL 시험대비, 유학준비, 국가고시 준비, 취업준비, 대학원진학 준비
6. 수 강 료 : 8주 40,000원

中 國 語

〈초급〉 〈중급〉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
2. 강의시간:초급=07시 30분-08시 30분(월-금 주5일 수업)
중급= 18시 20분-19시 20분(월-금 주5일 수업)
3. 모집인원:각반 50명씩(정원제)
4. 강 사 : ●李松實 선생
●朴今淑 선생
5. 강의내용:정확한 발음, 문법, 독해력, 회화능력을 배양
6. 수 강 료:8주 60,000원

TOEFL L/C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
2. 강의시간:17시 10분-18시 10분 (월-금 주5일 강의)
3. 모집인원:40명(정원제)
4. 강 사:박준호 선생
5. 강의내용 : ●TOEFL L/C 고득점을 위한 전략 강의
6. 강의대상:기업체 취업대상자, 유학준비생, 영어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7. 수 강 료:8주 60,000원

프 랑 스 어

1. 기 간:9월 12일-11월 4일
2. 강의시간:07시 30분-08시 30분 (월-금 주5일 강의)
3. 모집인원:50명(정원제)
4. 강 사:이화용 선생
5. 강의내용:프랑스어 기초 문법, 독해, 회화
6. 수 강 료:8주 60,000원

TIME(독해)

1. 기간 : 9월12일-11월4일(8주간)
2. 강의시간 : 18시20분-19시20분(월,화,목,금,주4일 수업)
3. 모집인원 : 50명(정원제)
4. 강사 : 양순봉선생
5. 강의내용 : ●고급 시사영어 학습코스 ●TIME지의 독특한 표현양식, 어휘, 각종 신조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고급 영문 독해력과 영작력을 배양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
6. 수강료 : 8주 60,000원

A. F. K. N. 청취 (NEWS반·DRAMA반)

1. 기간 : 연중 계속 강의중
2. 강의시간 : NEWS반=17 : 10-18 : 20(월,화,목,금 주4일 강의)=18 : 30-19 : 40(월,화,목,금 주4일 강의)
DRAMA반=17 : 10-18 : 10(월,화,목,금 주4일 강의)
3. 강사 : NEWS반=강홍식선생
DRAMA반=MICHAEL YANG
4. 수강료 : 각반 1개월 4만원

영어청취연습 TOEIC L/C, TOEFL L/C 청취 훈련

1. 기간 : 9월12일-11월4일(8주간)
2. 강의시간 : A반=07시30분-08시30분(월-금 주5일 수업)
B반=08시40분-09시40분(월-금 주5일 수업)
C반=17시10분-18시10분(월-금 주5일 수업)
3. 모집인원 : 각반 40명(정원제)
4. 강사 : 박준호선생
5. 수강료 : 8주 60,000원

일 본 어

1. 기 간 : 9월 12일-11월 4일
2. 강의시간 : 초급반=7시 30분-8시 30분(월-금 주5일 수업)
중급반=17시 10분-18시 30분(월, 수, 금 주3일 수업)
3. 모집인원 : 각반 50명(정원제)
4. 강 사 : 김경주 선생
오상현 선생
5. 수 강 료 : 8주 60,000원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961-0081~2)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정정

수강신청 및 정정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후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입력 및 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중합시간표 변경사항(폐강과목, 시간, 강의실, 담당교수)을 확인한다. (수강신청확인서에 ***** 나타난 과목은 폐강과목임)

◈ 열람용 성적표를 참고하여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중복신청된 과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Ⅰ. 복학생 수강신청
1. 수강신청 기간:9월5일(월)~9월7일(수)
2. 수강신청 장소:정경대 전산A실

Ⅱ. 재학생중 수강신청 누락자 최종 수강신청 및 정정
1. 기간:9월8일(목)~9월10일(토)
2. 장소:정경대 전산A실

Ⅲ. 인문계과목의 정치경제학입문(ZA15500), 북한정치의이해(ZA15600), 일반경제사(ZA16000)가 추가로 개설되었음.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이 완료되면 반드시 F5를 입력하여야 함.

교 무 처 장